

## 『프로슬로기온』 3장 논증의 새로운 해석!\*

김 세 화

**【요약문】** 최근 최원배는 『프로슬로기온』3장에 나오는 논증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필자의 주장에 비판을 가했다. 그의 비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비판은 필자가 제시한 논증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판은 필자가 원하는 결론을 얻고자 한다면 도리어 다른 논증이 더 낫다는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필자가 제시한 논증은 분명 새로운 것이며, 최원배가 제시한 논증이 『프로슬로기온』3장에 나오는 논증에 대한 보다 나은 해석이라 할 수 없음을 보인다. 나아가 최원배의 두 번째 비판이 암시하는 보다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비판에 대해서 언급한다.

**【주요어】** 『프로슬로기온』3장, 최원배, 안셀무스, 해석

---

\* 접수완료: 2008. 7. 5 / 심사 및 수정완료: 2008. 8. 14

1

최원배(2007)<sup>1)</sup>에서 최원배는 『프로슬로기온』 3장에 나오는 논증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필자의 주장<sup>2)</sup>에 비판을 가한다. 그의 비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비판은 필자가 제시한 논증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판은 필자가 원하는 결론을 얻고자 한다면 도리어 다른 논증이 더 낫다는 것이다. 두 비판 모두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좋은 비판이며, 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하고자 한다.

2

최원배의 첫 번째 비판은 필자가 제시한 논증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자가 제시한 구체적 논증을 그 숨어 있는 전제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논증 III

(i)\*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

1) 최원배(2007), 『『프로슬로기온』 3장 논증의 새로운 해석?』, 『논리연구』 10-1, pp.99-107.

2) 김세화(2005), “A New Interpretation of the Argument in *Proslogium* 3”, 『철학적 분석』 11, pp.1-10.

- (ii)\* 우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iii)\*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크다.
- (iv)\* 우리는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v)\* 그런데 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vi)\* 그런데 이는 불합리하다.
- (vii)\* 따라서 (i)\*은 거짓이다.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 (C)\*\*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leftrightarrow$  P가 가능하다.
- (vii)\*-1 신이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vii)\*-2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 (vii)\*-3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 (viii)\* 따라서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증을 기존의 해석과 비교해 보자.

## 논증 II

- (i)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 (ii) 우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iii)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크다.
- (iv) 우리는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v) 그런데 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vi) 그런데 이는 불합리하다.
- (vii) 따라서 (i)\*은 거짓이다.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 (C)\*\*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 P가 가능하다.3)
- (vii)-1 신이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vii)-2 따라서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 (viii)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이 두 논증을 비교해 보면, 필자가 제시한 논증 III은 기존의 해석인 논증 II과 (vii)-2까지 동일하며, 그 이후의 단계인 (vii)\*-3과 (viii)\*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원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국 기존의 해석인 논증 II와 이른바 ‘새로운’ 해석인 논증 III의 차이는 [(vii)-2] 이후 단계에 있는 셈이다. 물론 논증 II의 최종 결론과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다르다. 논증 II의 최종 결론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 반면,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논증 III은 논증 II와 다른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논증의 최종 결론은 모두 귀류법을 통해 얻은 직접적 결론[(vii)-2]의 서로 다른 양상 논리적 귀결에 불과하다...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논증 II의 최종 결론보다 약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논증 II에서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다. 즉 귀류법에 의해 일단 신의 존재가 필연적임을 주장하는 결론을 얻게 되면,

---

3) 엄밀하게 말해서 논증 II는 (C)\*\* 보다 약한 (C) [P가 가능하다 →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논증 II를 제시한 Englebretsen은 (C)\*\*를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세화(2005), p.3과 n.4를 보시오.

우리는 양상 논리의 추론에 의해 논증 II의 최종 결론이나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논증 III이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빛을 바랜다고 생각된다.<sup>4)</sup>

여기서 한 가지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함은 (vii)\*-3이 주장하는 것이고,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viii)\*, 즉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원배가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최원배가 주장하는 대로 논증 III과 논증 II의 차이점이 (vii)-2 이후의 단계에만 있으며, 일단 신의 존재가 필연적임을 주장하는 결론, 즉 (vii)-2를 얻게 되면 논증 II의 최종 결론이나 논증 III의 최종 결론(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종 결론 바로 이전 단계의 결론)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 때문에 논증 III이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빛을 바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프로슬로기온』 3장에 나오는 논증에 대한 기존의 해석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슬로기온』 3장에 나오는 논증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가지 해석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논증 II로, 이 논증이 신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증명을 제시한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 논증이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증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 존재가 증명된 신의 한 특성 혹은 속성을 발견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여기서 발견되는 신의 속성이 바로 필연적 존재이다.<sup>5)</sup> 이 논증을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4) 최원배(2007), pp.105-106.

5) 김세화(2005), p.2와 n.2를 보시오.

논증 II#

- (i)#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 (ii)# 우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iii)#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크다.
- (iv)# 우리는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v)# 그런데 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vi)# 그런데 이는 불합리하다.
- (vii)# 따라서 (i)\*은 거짓이다.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 (C)\*\*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 P가 가능하다.6)
- (vii)#-1 신이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vii)#-2 따라서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논증 II는 논증 II#와 (vii)#-2 단계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논증 II의 최종 결론은 논증 II#의 최종 결론보다 약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논증 II#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다. 즉 귀류법에 의해 일단 신의 존재가 필연적임을 주장하는 결론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양상 논리의 추론에 의해 논증 II의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6) 엄밀하게 말해서 논증 II는 (C)\*\* 보다 약한 (C) [P가 가능하다 →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논증 II를 제시한 Englebretsen은 (C)\*\*를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세화(2005), p.3과 n.4를 보시오.

다시 말해 논증 II#의 최종 결론이 귀류법을 통해 얻은 직접적 결론인 신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것이면, 논증 II의 최종 결론은 이 직접적 결론의 양상 논리적 귀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이 두 해석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 해석의 경우 다른 해석에 비해 그 새로움의 빛이 바래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동일한 텍스트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해석에서 제시하는 논증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은, 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두 해석이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것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를 통해 보이고자 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시하고 있는 논증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필자의 논증 III과 이 두 논증을 비교해보자. 이 세 논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만이 존재한다.

논증 II#	논증 II	논증 III
□P	□P	□P
	따라서 P	따라서 ◇P <sup>7)</sup>

논증 III은 논증 II, 논증 II#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그 최종 결론은 논증 II#로부터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면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최원배의 지적대로 논증 II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

### 논증 III

---

7)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것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그 전 단계라는 것을 무시하였다. 이것은 아래에 제시된 정식화에도 적용된다. 위의 논의를 보시오.

□P

따라서 P

따라서 ◇P

그러나 앞에서 우리는 논증 II와 논증 II#가 거의 일치하며 논증 II의 최종 결론이 논증 II#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 논증 II이 논증 II#와 별로 다르지 않다거나 그다지 새롭지 않다고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증 III은 논증 II, 논증 II#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그 최종 결론은 논증 II나 논증 II#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논증 III이 기존의 해석과 별로 다르지 않다거나 그다지 새롭지 않다고 비판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해석이 다른 해석이라는 것,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를 통해 보이게 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시하고 있는 논증이 기존의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아닌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논증 II#의 최종 결론은 신의 필연적 존재이며, 이를 통해 이 해석은 필연적 존재를 신의 한 속성으로서 보이게 하였고, 논증 II의 최종 결론은 신의 존재로서, 이를 통해 이 해석은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또 하나 제시하고자 하였고,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존재가 생각될 수 있다)이며, 이를 통해 이 해석은 『프로슬로기온』 2장에 제시된 논증의 한 전제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논증 III은 기존의 해석이 제시한 논증의 최종 결론과 다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필자의 논증 III은 분명 새로운 해석이다.



최원배의 두 번째 비판은 필자가 원하는 결론을 얻고자 한다면 도리어 다른 논증, 즉 그가 제시한 논증 IV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 논증은 최원배(2007) p.101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다 옮기지는 않겠다. 그 논증에서 중요한 것은 필자가 제시한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 귀류법을 적용하는 전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필자가 제시한 논증은

(i)\*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을 전제로 시작되는데, 논증 IV는

(i)\*\*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없다고 가정하자.

를 전제로 이에 귀류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얻는다. 최원배는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이 (i)\*에 귀류법을 적용하여 얻은 직접적 결론이 아닌데 반해 논증 IV의 최종 결론은 (i)\*\*에 귀류법을 적용하여 얻은 직접적인 결론이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보다 단순한 논증 IV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결국 김세화가 원하는 대로 『프로슬로기온』3장의 논증을 2장 논증의 한 전제인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를 정당화하는 논증으로 보려면, 우리는 논증 III이 아니라 논증 IV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8)</sup>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논증 IV가 논리적으로 보다 단순하다는 주장은 그것이 『프로슬로기온』3장의 논증에 대한 보다 나은 해석이라는 주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이전 논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논증 IV는 텍스트와 맞지 않는다.<sup>9)</sup> 그리고 이것은 최원배도 “하지만 김세화의 지적대로 이것은 『프로슬로기온』에 나오는 안셀무스의 언급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sup>10)</sup> 텍스트와의 일치가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프로슬로기온』3장의 해석으로 논증 IV를 채택해야 한다는 위의 주장은 따라서 그 논거가 매우 약하다.

## 4

그러나 최원배의 이 두 번째 비판은 그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또 다른 비판을 암시한다. 만약 『프로슬로기온』3장의 논증이 2장 논증의 한 전제인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를 정당화하는 논증이라면, 왜 안셀무스는 2장에서의 논증에서처럼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을 부정하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귀류법을 적용하는 논증 IV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가 정말로 3장 논증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결론이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라면 그는 보다 단순한 논증인,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2장 논증의 형식과 좀 더 일치하는 논증 IV를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논증 IV은 텍스

---

8) 최원배(2007), p.107.

9) 김세화(2005), pp.6-7.

10) 최원배(2007), p.107.

트와 맞지 않는다. 즉 논증 3으로부터 우리는 논증 IV를 제대로 끄집어 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안셀무스가 3장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결론이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가? 이 비판은 결국 안셀무스는 3장 논증을 2장 논증의 한 전제를 정당화하려는 논증으로 결코 의도한 바가 없었고, 따라서 논증 III은 그가 의도한 논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비판이 텍스트의 해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논증 III은 사실 안셀무스가 실제로 의도한 논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 역시 받아들인다.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서 저자가 실제로 의도한 것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가, 텍스트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자가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는가, 저자의 의도는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여기에서 필자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란 문제이다. 다만 필자는 이미 이전 논문에서 논증 III은 안셀무스가 의도한 논증으로서가 아니라 텍스트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논증으로서 제시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논증 II 역시 동일한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sup>11), 12)</sup>

서울산업대학교 기초교육학부

Email: [seahwak@snut.ac.kr](mailto:seahwak@snut.ac.kr)

---

11) 김세화(2005), pp.3-4.

12)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그리고 특히 최원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투고 요령

### 1. 발간일 및 원고접수

『논리연구』는 2월 28일(1호)과 8월 31일(2호) 연 2회 발간되며,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 2. 원고종류

- 1) 논문: 논리학 분야 및 철학, 수학, 전산학, 언어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논리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는 논문.
- 2) 서평: 논리학 또는 논리학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국내 외의 학술적 저서에 관한 비평.
- 3) 논문평 또는 토론: 『논리연구』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학술지에 발표된 주요 논리학관련 논문에 대한 비판적 논의.

3. 분량 : 다음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는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1) 논문 :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200매 이하.
- 2) 서평 : 200자 원고지 100매 이하.
- 3) 논문평 또는 토론 : 200자 원고지 100매 이하.

### 4. 투고요령

- 1) 원고는 한글97이상 혹은 MS Word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2) 요약문을 포함한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어야 하며, 투고자의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투고자의 성명, 논문 요약문(논문 요약문 작성 요령 참조) 및 제목의 영문 표기를 투고논문과 다른 별도의 파일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처 : 투고원고는 우편 또는 e-mail로 다음의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정인교 교수 연구실, e-mail: ichung@korea.ac.kr

### 원고 작성시 주의사항

『논리연구』에 원고를 투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1. 참고문헌 작성

-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첨가한다.
- 2)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 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한다.
- 3) 참고문헌의 수록 순서는 국내 문헌 다음에 외국 문헌을 신되, 각각 저자명의 가나다와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 2. 참고문헌 표기법

- 1) 책 제목 : 동양어권 - 『 』부호로 표시  
서양어권 - 이탤릭체로 표시
- 2) 논문 제목 : 동양어권 - “ ” 부호로 표시

서양어권 - “ ” 부호로 표시

(각 주요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 예) 권병진(2001), “프레게의 플라톤주의와 수 동일성 기준”, 『철학』.  
정대현(1994), 『필연성의 문맥적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riest, G.(2002), “Rational Dilemmas”, *Analysis* 62.1,  
pp.11-16  
Quine, W. V. O.(1967), *Set Theory and Its Logic*, revised  
ed., Cambridge: Harvard Uni. Pr.

3. 편집의 일관성을 위하여 가능한 장, 절, 항, 목을 1, 2), (3),  
④로 표시하고, 주석은 각주로 한다.

4. 투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은 피한다. (편집위원회  
의 판단에 따라 투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은 감추어진  
후 심사 위원에게 보내집니다.)

5. 투고된 원고와 디스켓은 반환하지 않는다.

### 논문 요약문 작성 요령

『논리연구』에 원고를 투고할 시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논문 요  
약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요약문 원고는 다음 순서로 구성된다.
  - 1) 논문의 요약문
  - 2) 다섯 단어 정도의 주요어 또는 검색어
2. 요약문의 본문 분량은 500자 정도로 한다.

3. 요약문에서는 논의된 주요 문제들 및 주제들과 이와 관련된 논제 및 주요 논의 개념들, 논거들을 언급할 수 있다.
4. 주요어 또는 검색어는 논문에서 논의되는 주요 개념들이나 주제들 또는 인물들을 언급한다.
5. 논문 제목, 필자성명, 요약문 및 검색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제출한다.

---

A New Interpretation of the Argument in *Proslogium* 3!

Seahwa Kim

---

In a recent paper, Wonbae Choi raises two objections to my interpretation of the argument in *Proslogium* 3. The first one is that my interpretation is not new, and the second one is that there i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which is better than mine. I defend my interpretation against them. I also touch on a related issue which can be derived from his second objection.

**[Key Words]** *Proslogium* 3, Wonbae Choi, Anselm, Interpretation